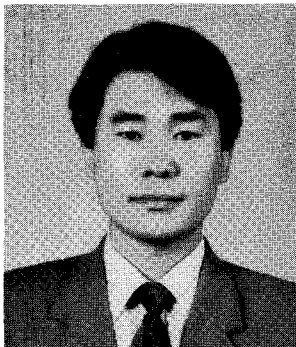


수입산 판치는 녹용시장 개선돼야 한다

올해 무역적자 「최악」 수입녹용도 일조, 「국산녹용 경쟁력 확보」에 정부 나서야



주 재 승
한국의약신문 취재부장

■ 수입녹용, 무역적자 거들어

지난해 무역적자가 최악의 상태를 기록했다.

지난 95년 무역수지적자가 1백억달러를 넘어서 나라 전체가 『이대론 안된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였는데 지난해는 한술 더 떠 적자폭이 95년의 두배에 이르는 1백9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수지적자가 「최악」을 기록하게된 배경으로 그동안 잘나가던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꼽고 있다.

95년 4/4분기(10~12월)에 개당 45.9달러였던 16메가 D램의 가격이 최근 10달러로 떨어짐에 따라 수출이 1백억달러 감소했다는 것이다.

반면 수입증가를 주도한 고가소비재의 수입증가율은 20.7%로 전체 수입증가율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수입을 주도한 주요 수입물품중 녹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품목이다.

녹용의 경우 세계 생산량의 80%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으며 물량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마디로 녹용이 우리나라 무역수지 악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품목중 하나가 되고 있다.

95년에 우리나라가 녹용을 수입한 물량은 생녹용 1만7천9백34kg, 건녹용 13만1천5백11kg 등 총 14만9천4백45kg으로 4천2백75만9백90달러어치에 이른다.

이같은 수입물량은 단일 품목으로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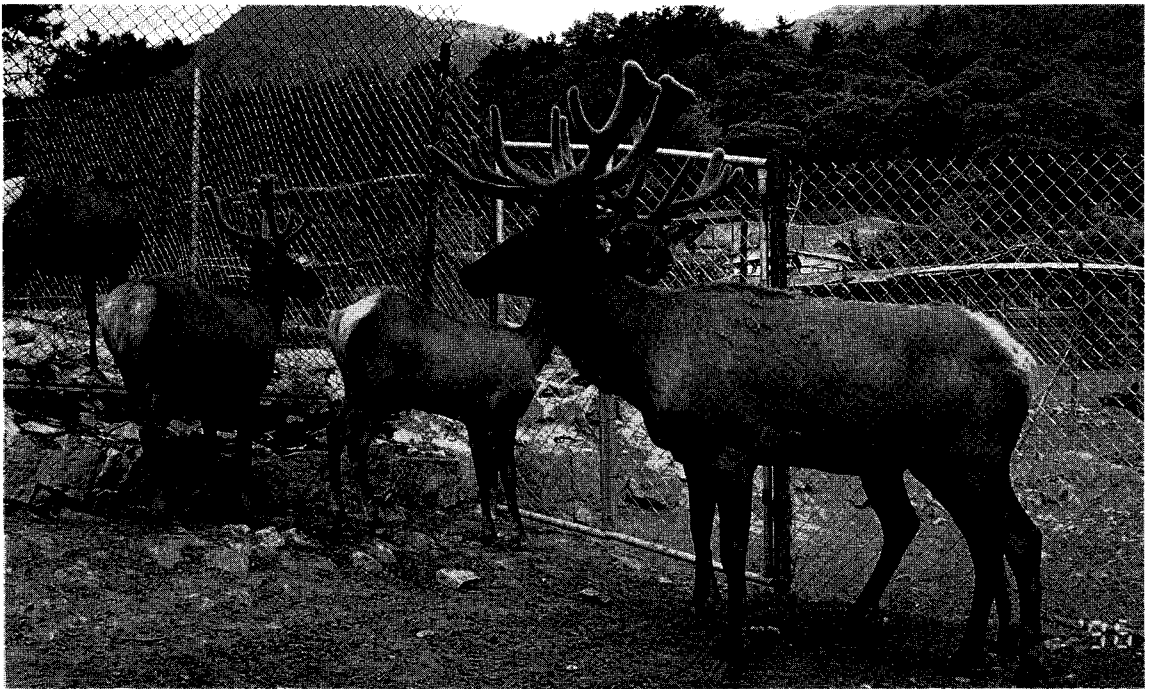
■ 녹용수입 신중히 다뤄져야

한방에서 녹용은 보혈과 진정 작용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녹용하면 흔히 보약(補藥)의 대명사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체는 치료약으로서 더욱 활용되고 있다.

기관지염, 폐렴, 백일해 등에는 환자가 열을 수반하는 증상이 있더라도 무난히 사용할 수 있으며 적혈구축진등 조절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한의사들은 인식하고 있다.

또한 녹용은 예방의학적 측면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허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의 체력증진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녹용을 일반의 인식처럼 단순한 보약(補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울러 수입녹용이 좋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역시 바로 잡혀야 한다.

우리나라의 녹용 자급률은 지난 76년 25%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향곡선을 긋다 82년엔 6%까지 떨어졌다. 83년 수입녹용변조사건이 터지면서 한때 22.5% (86년)까지 자급률이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 최근 몇년동안 20%를 밑돌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말 그대로 단순한 수치로 끝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 국산녹용이 한약취급업소를 통해 실소비자인 국민에게 투약되는 비중은 5% 내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마저도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한의사나 한약업사들이 자급자족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양록농가가 생산하는 녹용이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한약업소에서 투약용으로 사용되는 양은 극히 적은 물량일 뿐이다.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이후 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산물의 경우 「신토불이」붐이 일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서 또한 우리 것을 아끼는 것과 일치해 농수축산물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엔 한약재도 우리 것을 사용하지는 운동이 대한한의사협회와 농협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거래금액도 95년 13억, 96년 32억등 45억원어치나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산녹용에 대해서 만큼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한약유통업계 일각에선 국산녹용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이 높다느니, 품질이 떨어진다는니 하는 기피 이유를 대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현재 국산한약재 가격은 수입산 대비 1.5배 이상 비싼 값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한의원 등의 반응이 좋으며 국산녹용의 경우 러시아산과 중국산이 주류를 이루는 마록 및 매화록과 동종인 엘크, 꽃사슴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용은 보약(補藥)과 치료약 모두에 쓰이

는 귀중한 의약품이다. 따라서 식량 만큼이나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

이땅의 양록농가가 지금과 같은 외제 녹용 선호 풍조가 개선되지 않아 모두 양록업을 포기하고 녹용생산이 중단된다고 해도 한약재 수입상들은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녹용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인가를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한약취급업소들은 국내 양록농가의 희생으로 수입녹용의 고마진을 보장받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오늘의 현실이다.

■ 정부 국내 양록 활성화 정책 필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녹용이 수입산에 비해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정부가 양록농가에 대한 세제지원 및 생산된 녹용에 대한 관로를 열어준다면 국산녹용은 머지않아 가격면에서도 수입산과 경쟁을 벌일 수 있게될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영세한 양록업계에 녹용생산, 판로개척, 품질개선 등을 모두 맡겨,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95년말 현재 우리나라에 1천7백85만5천8백56달러 상당의 녹용을 수출한 뉴질랜드의 경우 눈에 보일 정도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6천여곳의 양록농가가 있는 뉴질랜드엔 뉴질랜드 시습제품 판매위원회(공공기관)와 뉴질랜드양록협회(민간단체)가 축이 되어 녹용 등 시습채취물 산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뉴질랜드 시습제품 판매위원회는 관련홍보에서부터 제품 품질관리, 규격화 등을 도맡아 업계의 수출을 돕고 있다. 민간단체인 양록협회는 제품판매위로부터 품질관리 및 규격화 등을 도움받아 양질의 녹용을 생산하고 있다.

협회는 또 정부연구기관인 인버메이연구소 등에 녹용품질향상 및 성분 분석등의 연구과제를 의뢰하고 여기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물론 이 연구비는 양록농가로부터 거둬들인다.

정부를 중심으로 업계, 연구소가 합심해 오늘의 녹용 최대수출국을 이뤄냈다.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역시 우리나라가 최대 녹용수입국인 만큼 뉴질랜드산 녹용 홍보에 적극적이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다국적기업 「메리트커뮤니케이션」이란 홍보대행 회사를 통해서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녹용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학술대회장 등을 찾아다니며 공격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같은 시간에 무얼하고 있었나?

복지부의 경우 국내 양록농가의 성화에 못이겨 국산 녹용을 축산물로 분류했을 뿐 관로를 열수 있는 「수급조절 품목 지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림부 역시 양록협회가 요구한 국산녹용의 건조시설을 갖추기 위한 자금지원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국산녹용 경쟁력 갖추기」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물론 국산녹용이 1만여 양록농가에서 생산되면서도 아직 경쟁력을 갖지 못한데 대해 업계도 자구노력 등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록규모가 소규모인 양록농가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정부로서 올바른 행정이다.

우리의 안방까지 모두 내준 국내 녹용시장에서 우리 녹용이 설 땅을 마련하는데서부터 「국산녹용 경쟁력 확보」는 시작돼야 한다.

한약관련업소는 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 녹용을 사용하고.... 양록농가는 품질향상에 힘쓰고....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지난해 무역적자가 1백9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어두운 전망이 아니라더라도 수입산이 판을 치는 녹용시장의 현실은 분명 개선돼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